

10-20-2024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3:1-5

말씀 제목: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올 것에 대해 목회자 디모데에게 예언적으로 증거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궁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딤후 3:2-5)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날들은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있게 될 날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고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120년 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을 하시기 전에 120년이라는 기한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마지막 날들은 120년이었습니다. 노아는 그 마지막 날들인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방주 짓는 일을 충실하게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의 메시지를 전파했다고 사도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나 여덟 번째 사람인 의의 전파자 노아는 구원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느니라.”(벧후 2:5)

예수께서는 자신이 마지막 날들이 지나고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세상에 다시 오실 마지막 날들에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나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의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의 날들에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기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하였던 것같이, 인자의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마 24:36-39)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기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했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악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노아 때에 살았던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악한 일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딸들이 그들에게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들로 삼으니라...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에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으니, 그 일이 그의 마음을 비통케 하였더라...하나님께서 땅을 보셨는데, 보라, 그것이 부패되었으니, 이는 모든 육체가 땅 위에서 그 행위를 부패시켰음이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육체의 종말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하여 폭력으로 가득 찼음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망시키리라.’”(창 6:1,2,5,6,12,13)

하나님께서서는 노아 때에 살았던 사람들과, 조만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휴거의 날과 지상 재림 직전인 지금 마지막 날들에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 역시 사악함과 그들의 마음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함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날들에 있게 될 아주 어려운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악함이 노아 때에도 그러한 악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 때에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후에도 바벨을 세운 니므롯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여 도성과 탑을 하늘 높이 쌓아 그들이 지면에 흠어지지 않으려 했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 마지막 날들에 헛된 일들을 한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지막 날들에 음란한 행위들을 자행하다가 결국 유황불에 의해 소멸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악한 세상을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악한 세상 사람들이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가지 재해들을 일으키시며 회개치 않는 세상에 대 환란을 통하여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세상 끝이 될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니라...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을 것이며, 땅에는 민족들이 혼란 중에 괴로워하며 바다와 파도가 노호하리라. 이 땅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하며,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실신할 것이라.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라.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세와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위를 보고 너희의 머리를 들라. 이는 너희의 구속이 가까이 왔음이라.”(마 24:5-8, 눅 21:25-28)

성경에서 마지막 날들이 언제 시작되었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육천 년 전에 에덴 동산에 죄를 가져와서 그의 말을 듣고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법에 의해 온 세상을 사탄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때가 차게 될 때에 사탄은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에 나타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머리가 부숴짐으로 인해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셋째 날에 부활하셨을 때 죄와 사망의 권세 잡은자 사탄을 심판하셨으며 천년왕국 끝에 그를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 넣으실 때 그가 통치하던 세상이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성령이 오신 후부터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는 마지막 날까지 지난 이천 년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들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구원받게 하기 위해 지난 이천 년 동안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공중에 나타나셔서 자신의 교회를 하늘로 데려가시는 휴거의 날이 되면 마지막 날들에 주신 은혜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예수께서는 성령이 오신 후에 그가 세상이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책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진리를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니라. 만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 가므로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며 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요 16:7-11)

이미 이 세상 통치자 사탄 마귀가 하늘 법정에서 심판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에 대한 심판이 집행되어 여자의 후손이 그의 머리를 부수게 되는 것입니다(창 3:15).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온 영과 혼과 몸이 책망받을 것 없이 보존되도록 기도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살전 5:23). 마지막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할렐루야!